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 | 2026. 7. 22.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선정하였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 | 2026. 7. 22.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건축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구현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충남 도시재생 소식

아산시, 주민공모사업 ‘어르신 문화공동체’ 운영

아산시 | 2026. 7. 20.

충남 아산시는 20일, ‘2026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하나로 아산시무용단이 추진한 ‘마을이 들썩! 실버 전자드럼 교실’을 도고혁신플랫폼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신체활동과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가 줄어든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자드럼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활력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 ‘허창구 대장간’ 도시재생 문화공간으로

아산시 | 2026. 7. 22.

충남 아산시는 ‘2026년 아산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역사문화 자산인 허창구 대장간을 현대적인 공예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허창구 대장간의 숨결을 담은 공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문화예술전문단체 예술이음플랫폼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허창구 대장간의 역사와 철 문화를 꽃, 자개 등 현대 공예와 접목해 시민들이 직접 생활공예품을 제작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충남 아산, 주민주도 도시재생 ‘말랑말랑 온정 교실’ 운영

아산시 | 2026. 7. 23.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아산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하나로 말랑말랑협동조합이 영인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말랑말랑 온정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인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공동체 교육과 역량강화 과정에 참여한 후 설립한 말랑말랑협동조합의 지역 환원 활동이다. 협동조합이 그동안 축적한 공동체 활동 경험과 성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착수...원도심 활성화 로드맵 마련

당진시 | 2026. 7. 21.

충남 당진시가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에 착수했다. 21일 당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토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기존 전략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감플랫폼 합덕백살카페 개관 1주년 100년 된 미곡창고, 사람과 문화 잇다

당진시 | 2026. 7. 20.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미곡창고가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지 1주년을 맞이했다. 문화 공감플랫폼 ‘합덕백살카페’는 합덕읍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적 거점시설 중 하나다. 과거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맞물려 곡물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이곳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7월 11일 문을 연 합덕백살카페는 건축 당시의 목재 트러스 구조와 빗살무늬 내벽, 곡물 보관을 위한 통풍구 등 원형을 최대한 살려 근대산업유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카페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수제 쌍화차로 골목 살린다...논산 첫 도시재생 카페 '마실you'

논산시 | 2026. 7. 22.

충남 논산시 화지동에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첫 도시재생 카페가 문을 열었다. 논산시는 화지동 한방특화거리에 조성한 '마실you 카페'를 개소하고 논산화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겼다고 22일 밝혔다. 카페는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논산지역 첫 도시재생 사업 사례다. 주민 교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침체한 상권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맡는다.

